

#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 만든다

### 시, 2025년까지 현수막 게시 면수 50% 추가 확보 · 게시대 관리 일원화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전주시는 현수막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을 내놨다. 이는 전주시민의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만들기 종합계획'을 23일 수립한 것이다. 청정도시 수립 주요내용에는 '지정 게시대 확충, 정비반 운영 및 과태료 부과장수,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 제 실시' 등을 담고있다. 이를 위해 시는 상업용 게시공간 200여 면을 추가 확보하는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총 440여 면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기존 상업용 현수막 게시공간을 1300면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직접 운영·관리하는 저단형 게시대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상업용 광고까지 허용하는 등 연중 유휴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관리 체계를 세웠다. 아울러 시는 부분별하게 설치된 지정게시대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변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다. 시는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해 정비협약 등을 실시해 현수막 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상습·다량 게시되는 아파트 분양광고물과 고질적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비틀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 현수막 설치 의지를 원천 차단시키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앞으로 명확한 전단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벽보와 전단지의 보상금 단가를 올려 광고물 정비를 유도할 전망이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시설을 확충해 불법 현수막을 제도권으로 안착시키고, 동시에 강력한 정비를 실시하겠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한국마사회 징수국장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야외체험 활동 지원,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자리를 23일 가졌다.

## 전북경찰 활약으로 보이스포싱 수거책 검거

### 경찰 추적수사로 피의자 3명 잡아 추가 피해 예방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오가며 보이스포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지난 8일 밤인 A씨(20대)와 B씨(20대, 친구사이)는 군산시 00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K(60대, 여)를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수거하는 것처럼 속여 3,450만원을 건네받았으며, 또 전주와 군산을 오가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들어났다.

이에 앞서, 경찰은 20일 오후 4시경 익산시 00마트 앞에서 보이스포싱 수거책 C씨(60대)를 검거했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 9일부터 17일까지 전주와 익산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C씨(60대)는 현금 1억3,000여만원을 건네받았고, 익산지역에서 현금 1,500만원을 수거하도록 지시받은 것까지 밝혀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했다. 김황수 전북경찰청장은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스스로 알

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예전과 확연히 다른 수법들을 사용되고 있다.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화번호 번차,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에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사례에 대입해이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작위로 발송된 '대출·정부지원금' 문자메시지는 100% 미끼문자 이므로 절대 누르지도, 전화하지도 말아야 한다. 검사·검찰수사관·금융감독원이나

은행직원 등 누구를 막론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보안 프로그램' 등 어떠한 명목으로 링크를 보낸다면 이는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영장 등 공문서등을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 또는 문자로 내용을 보내지 않고 무조건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다. 만약 전화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국가기관·금융기관 어디든지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어떤 명목이든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김영태 기자

## 발달장애인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 모색

### 전주시,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갖고 협력 체계 구축 강화

전주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한국마사회 징수국장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야외체험 활동 지원,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자리를 23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치유농장 운영현황과 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공유됐다. 또 다양한 외부 자원 발굴·연계를 위한 기관간 상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장동과 대성동에 각각 치유농장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15개 장애인시설에 발달장애인 약 200여 명이 치유농장 프로그램에 참

여했다. 여기에 시는 올해 외부자원과 연계해 목장체험, 숲체험, 김치담그기, 팸투어 등 다양한 체험활동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협력기관 간담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치유농장 운영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조성한 장동 치유농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한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사례(사람중심 포용 사회 분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영태 기자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 전주시, 3월 2-7일 주소지 등 주민센터서 받아

전주시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기초생활비와 숙식비, 교육비 등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9세부터 만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생활비, 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시는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지원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다. 이번 사업은 타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

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복지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삼았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확인 및 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생활지원 월 65만 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내, 학업지원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 또는 주소지 등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청년정책과(063-281-2254)로 문의하면 된다. /조이복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전개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23일 실시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남부시장,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임실시장' 등 상습 정체 구간을 대상으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소방 통로 확보와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 의식 향상을 위해 매일 실시되고 있다. 이번 훈련의 주요 내용에는 '소방차 길 터주기 합동훈련, 소방차 진입 장애구간 홍보 방송, 소방출동로 확보 플래카드 차량부착, 상습 정체구간 소방차 진입 및 통행 훈련,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훈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해 시민들은 '교차로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운전, 편도 2차선 도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23일 실시했다.

로 2차선으로 양보 운전, 긴급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장수 서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는 매우 중요하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이복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반지하 주거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과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덕진구 관내 반지하 주거시설의 안전점검을 23일 나섰다. 일반화재에 비해 주택화재는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특히 반지하 주거시설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 화재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함께 반지하 주거시설의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했다. 소방서에서는 덕진구 관내 반지하

주거시설에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대피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마련했다. 또 반지하 주거시설 거주자의 일산화탄소 증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일러 등 가스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반지하 주거시설은 화재 발생 시 다른 곳보다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